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	과 장 양재석 사무관 박성수	042-481-8321 042-481-8243
2021년 5월 20일(목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4차 산업혁명 속 속도전! 임시명세서로 뒷받침!

- 논문,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빠르게 -
- 최다 이용자는 LG전자, 삼성전자가 1, 2위 -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작년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, 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*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.

* 임시명세서 이용건수: ('20.4월) 227건 → ('21.4월) 730건 (3.2배 ↑)

☞ **임시명세서 제도('20.3.30 시행):**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,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, 출원일(우선일)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 가능

-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,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.
- 특히, 통신 기술(5G)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,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.

-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*를 이용하여 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.

* (가출원 제도) 우리의 임시명세서 제도와 유사하게, 특허출원 시 표준화된 명세서 서식 대신 자유롭게 발명을 적어서 출원하는 제도

-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(26.3%)·컴퓨터기술(13.6%)·전자상거래(10.0%)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(49.9%)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]

-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1, 2위를 차지하고 있고, 제도 시행 이후 각각 1,191건,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다.

-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(82.6%)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으며, 삼성전자는 통신(171건, 26.8%)과 컴퓨터기술(240, 37.7%) 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.

-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우리 기업들에게 강점이 있는 통신·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, 출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”라고 하면서,

- “우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제도와 박성수 사무관 (☎ 042-481-8243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붙임

임시명세서 제도 이용 추이 ('20.3월~'21.4월)

□ (이용건수) 임시명세서 시행 초기부터 200건을 돌파하여 불과 1년만인 '21.4월에 3배 이상인 730건에 도달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○ (기술분야) 임시명세서 제도는 통신·컴퓨터기술·전자상거래 등 IT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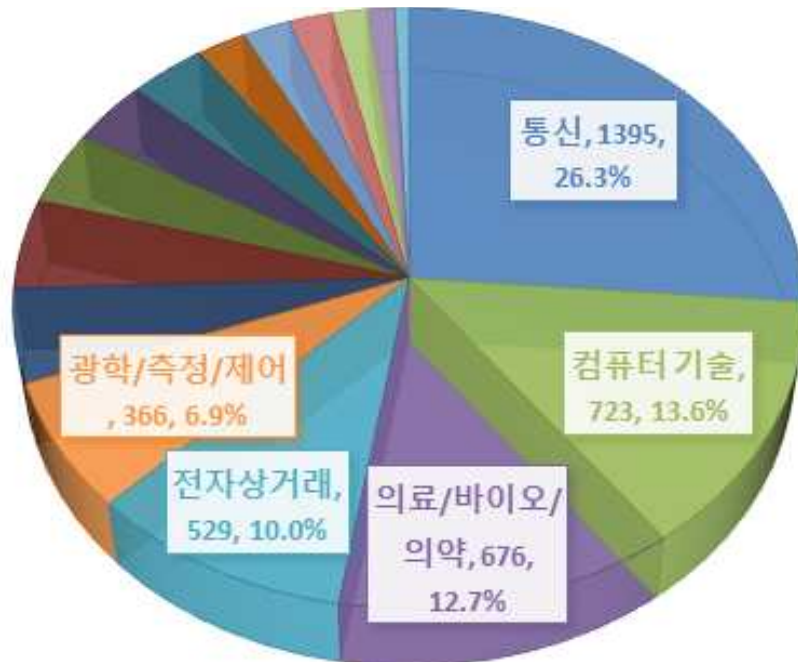
※ WPO 16대 기술분야에 따른 분류이며, 특허분류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건(1,026건)은 제외함

<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건수 >



20년										21년			
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
19	227	262	372	493	338	437	396	648	760	492	431	596	730

<임시명세서를 이용하는 주요 기술분야 (건, 비중) >



□ (주요이용자 분석) 임시명세서 제도는 엘지전자·삼성전자 등 IT 업계의 선두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

○ 표준특허 확보가 중요한 IT 기술분야*에서 임시명세서를 주로 활용

* 통신 분야, 컴퓨터기술 분야

	통신	컴퓨터기술	기타(14개 기술)	총합
1위 : LG전자	984 (82.6%)	19 (1.6%)	188 (15.8%)	1,191 (100%)
2위 : 삼성전자	171 (26.8%)	240 (37.7%)	226 (35.5%)	637 (100%)
3위 : 한국과학기술원	21 (18.3%)	30 (26.1%)	64 (55.7%)	115 (100%)
4위 : 현대자동차	58 (86.6%)	6 (9.0%)	3 (4.48%)	67 (100%)

※ WIPO 16대 기술분야에 따른 분류

※ 특허분류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건(1,026건)은 제외